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68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제주 제1경 일출봉 오르다

입력 : 2003. 10.17. 00:00:00



제주의 비경을 대표하는 영주십경의 제1경이 성산일출이다. 제주 본섬의 동쪽 시작은 바로 성산일출봉이다. 새해 첫날 제주도민과 관광객 수만명이 이곳을 찾아 새해를 설계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성산리청년회는 이곳에서 매년 해맞이 일출제를 연다. 탐사단이 9월 21일 일출봉을 찾았다.

일출봉 길목은 최근 10년 사이 변화가 많았다. 주변 경관을 어지럽혔던 호텔이 철거되고 상가들도 옮겨져 말끔히 단장됐다. 휴일을 맞아 일출봉은 관광객들로 넘친다.

탐사위원 정광중교수는 성산일출봉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 오름 자체의 경관적 가치는 물론 주변부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먼저 동북쪽으로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우도와 섬을 잇는 수로(水路)를, 남서쪽으로는 섭지코지와 남해로 이어지는 망망대해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육지쪽으로 눈을 돌리면 제주 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집과 여러가지 건축물, 길과 밭과 과수원이 인공미를 자랑하는 작품처럼 요소 요소에 진열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름군락이 적재적소에 자리잡으며 마을과 들판을 감싸는 모습도 놓칠 수 없는 경관이다.”

탐사단은 분화구안으로 들어갔다. 분화구 면적은 3만여평. 분화구안은 참억새와 띠가 주로 분포하는 초지대를 중심으로 화구륜 사면 안쪽에 해송군락과 대나무(이대) 군락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나무군락의 확산이다. 지금 추세라면 머지않아 분화구 전체를 잠식할 만큼 위협적이다. 대나무 군락은 어떻게 이곳에 유입됐을까. 이 단서는 과거 사람이 살았거나 경작했던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조때는 일출봉내에 왜구침입에 대비한 성곽과 공수가 축조됐었다는 기록과 분화구내 경작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찬식박사는 “이재수란(1901년) 직후 천주교회의 폐단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인 ‘정의군교폐성책’에 따르면 당시 분화구 안에 모초전(茅草田), 서당전(書堂田)을 경작했었고 그에따른 폐단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고정군박사는 “대나무의 유입은 경작이나 사람의 흔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탐사단은 성읍 남산봉 분화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산봉 분화구는 불과 20~30년만에 대나무군락으로 뒤덮혀 버렸다.

성산일출봉 능선 암벽사면에는 환경부지정 호호야생식물인 풍란이 자생하고 있다. 분화구 안 참억새 지역에서는 '야고'가 확인됐다. 야고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제주 한정분포식물로 참억새에 기생하여 자라는 독특한 생활사를 갖는 식물이다.

성산일출봉은 제주산악인들에게도 각별한 공간이다. 오문필 탐사위원은 "오현고산악인들이 시도했던 한라산 동서종주의 출발지가 바로 일출봉이다. 일출봉은 경도상 제주 본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종주코스는 일출봉에서 출발해 한라산 정상을 지나 서쪽 수월봉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오현고산악부는 70년대초 동서종주에 나서면서 분화구 동쪽 끝자락 능선에 타임캡슐을 매설했다고 한다.

분화구를 가로질러 동쪽 화구륜에 이르면 깎아지른듯한 외벽과 우도, 섭지코지, 망망대해가 압권이다. 그 경관에 매료돼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하니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된다는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풍수를 연구하는 신영대교수는 분화구 화구륜을 이렇게 해석했다. "성산일출봉은 풍수에서 말하는 오체(五體)의 산으로 화형(火形)에 속한다. 분화구를 중심으로 외벽이 뾰족뾰족하게 기암들이 솟은 것이 마치 불꽃을 보는 듯 하다. 그렇기에 성산일출봉은 해맞이 봉으로서 일품이다. 성산일출봉에 올라 천지사방을 바라보면 신국(神國)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사진설명]탐사단이 일출봉 분화구를 가로질러 화구륜 동쪽사면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강경민 기자 gmkang@hallailbo.co.kr

[전문가 기고]분화구 대나무군락화 대책절실

일출봉의 식물분포는 크게 분화구내의 초지대와 분화구 외륜 내외의 암벽에 착생하는 암벽식물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출봉 분화구내에는 화입, 방목으로 발생하는 방해극상인 2차 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우점종은 참억새, 띠, 솔새 등이며 방목과 화입이 금지된 후 보리수나무, 꾸지나무, 짚레 등이 분포하여 관목림으로 천외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분화구 일부 지역과 내벽에서 자라기 시작하여 점차 안쪽으로 분포역을 넓혀가는 이대군락은 대나무의 왕성한 번식력을 감안하면 일출봉 분화구내의 주요 우점식물로 변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분화구 면적의 약 15% 정도가 이대 군락으로 잠식된 것으로 보인다.

일출봉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방목이나 화입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대나무의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생육 특성을 고려하면 일출봉 분화구내 초지는 전체가 대나무군락으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되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출봉 암벽의 착생식물 중 바위나 나무 껍질에 착생하여 자라는 착생난의 한 종류로 현재 자생지가 파괴되는 등 멸종위기에 처하여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 19호'로 보호되고 있는 풍란이 자생하고 있다.

풍난은 남해안 일부 도서와 제주도에서 자생한다고 보고되었지만 제주도에 자생지는 일출봉 암벽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된 식물이다. 자생지는 등산로 입구의 동경바위 상부와 일출봉 8, 9부 능선의 험준한 암벽이며 과거에는 일출봉 암벽에 풍난이 많이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무단 채취와 서식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이다.

특히 과거 염소의 방목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어 지금은 소수의 개체만이 자생하고 있고 제주도에 더 이상의 자생지가 발견되지 않아 풍난의 유일한 자생지인 일출봉에서 보다 정밀한 자생지 실태조사와 적절한 식생관리 등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강영제 위원 제주임업시험장연구사/식생분야>

[전문가 기고]기암괴석 봉우리 '성채' 연상

성산일출봉은 수증분화활동을 통해 형성된 화산체이며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모래톱으로 인하여 제주도 본섬과 연결된 육계도(陸繫島)이다. 화산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오랜 동안 풍화 및 침식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화산체의 외륜산이나 바다를 면하는 바깥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괴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퇴적지층을 관찰하는 데는 아주 편리하고 중요한 오름 중의 하나이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내의 전체 오름 368개(1997년 제주도 조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1년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오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지명도에 힘입어, 단일 오름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보호되고 있기도 하다.

탐라순력도를 비롯한 여러 고지도에는 성산일출봉이 성산(城山)이라 표현돼 있다. 이는 성산일출봉의 봉우리가 마치 성(城)담을 에워 쌓은 듯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정상에 올라서서 원형으로 둘러쳐진 기암괴석의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의 서 성채(城砦)를 연상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조선시대 때 성산일출봉 북동쪽에는 봉수대(烽燧臺)가 설치돼 있었다. 봉수대가 자리잡던 장소는 그 높이나 위치로 보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라 생각되지만, 것처럼 험소하고 험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더욱이 위급시에는 연기와 불을 피웠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다.

성산일출봉에 올라서면 성산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성산리는 거대한 오름을 머리에 이는 듯한 형국으로 오름 아래쪽 평탄한 곳에 좌우로 길게 펼쳐져 있는 셈이다. 즉 성산일출봉은 성산리의 보배로운 진산(鎭山)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경제적 측면의 진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광중 위원 제주교대교수/인문지리분야>

[포커스]진지동굴과 4·3 학살터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성산일출봉 일대에는 슬픈역사도 배어있다. 제주의 오름에는 일본군이 파놓은 군사유적이 많다. 태평양전쟁이 종반에 이르면서 불안을 느낀 일본이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거점으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제주 해안으로 상륙하는 미 해군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 해안 곳곳에 인공동굴을 파서 군함을 향해 돌진할 자살공격용 병력과 장비를 은닉시켰다.

도내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군사유적이 일출봉 해안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일출봉 서쪽 수마포 해안에 일제가 뚫어놓은 인공 진지동굴 24개가 그것이다.

더 슬픈 역사는 4·3때의 일이다. 일출봉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마지막 부분에 '터진목'이라는 곳이 있다. 일출봉에 거의 다 와서 좁아지는 길목으로 원래는 바닷물이 왔다갔다해서 '터진 길목'이었다. 이곳에서 성산지역 청년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당시 오후만 되면 터진목 쪽에서 한동안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하니 당시의 참혹상을 짐작케 한다. 터진목 반대쪽 '우묵개'도 오조리 청년들이 학살됐다.

일출봉은 이처럼 한국 근현대사의 슬픔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大脈에서 만난 사람]오현산악동호인회(현악회)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에 오현산악동호인회(이하 현악회·회장 박선홍 전 남녕고 교장) 임원진이 동행했다.

현악회는 오현고 출신 동문들이 총동문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99년 6월 발족한 산행 모임이다. 현재 2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현악회 임원진은 탐사단과 함께 우도에서 성산일출봉까지 동행했다. 탐사에는 임시영 등반대장(삼우창호 상무)과 하진환 감사(프로스펙스 제주대리점 대표), 강승조 재무이사(제주시청 민원실)가 참여했다.

임 대장은 "한라일보사가 한라대맥 탐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행하게 됐다"며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탐사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악회의 산행기록을 보면 왕성한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5년에 이르는 동안 60여개의 오름과 계곡, 동굴을 비롯해 우도, 추자군도, 비양도 등 유인섬을 두루 답사했다. 역사·민속유적도 빼놓을 수 없는 답사코스다. 매년 도외답사와 해외 원정등반에 나서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과의 합동등반에도 주력하고 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